



“화합과 단결로 불황 극복하자”

폭설 불구 300여 명 성황

새해를 맞아 인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2010년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공동 주최로 지난 1월 5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1 건배를 제의하고 있는 김진배 회장과 귀빈들
 2-4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우동 회장, 이충원 인쇄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조합 이사장
 5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인쇄인들
 6 인쇄인을 맞이하고 있는 4단체장
 7 떡을 자르고 있는 내빈들

이날 인사회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나기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양철우 교학사 회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재단 이사장, 김종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민재기 인협 명예회장,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 회장, 심용선 인천인쇄조합 이사장, 김충진 한국전시조합 이사장, 손안구 제일인쇄조합 이사장 등 내외 귀빈과 300여 명의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고 유기정 회장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으며, 홍우동 회장, 이충원 회장, 조정석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진배 회장의 건배사, 축하 떡 자르기,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우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지난해 ‘비전·핵심가치·핵심사업’을 마련해 발표하는 한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인쇄중주국으로서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인쇄문화대백과사전 발간을 준비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며 인쇄진흥재단 또는 인쇄금고 설립을 통해 인쇄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코자 한다”면서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그것이 확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 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충원 회장은 “걱정보다는 긍정의 힘을 빌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강인한 정신력과 협력을 통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미래 성장산업의 원동력인 녹색산업에 발맞춰 친환경 인쇄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한 단계 전진하자”고 밝혔다.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쇄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쇄문화 산업인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경인년이 되길 바란다”며 “어제 수북이 쌓인 눈처럼 복이 많이 쌓이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김진배 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인쇄인 모두 한마음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경인년을 기원하자”고 역설했다.☉